

국제평생교육도시 위상 재확인

UNESCO GNLC,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우수사례 공유 방문

군산시가 국제평생교육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UNESCO 관계자들이 군산의 사회약자를 위한 평생교육 우수기관인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한 UNESCO 관계자들은 UNESCO 보건의료의장인 디디엘 주르당(프랑스)을 비롯해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케냐 및 콜롬비아 등 7개국 평생교육전문가와 전국평생교육도시협의회 등 총 15명의 국내외 평생교육 관계자들이다.



이날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방문해 교육현장 참관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질의응답 및 군산시와 발달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위한 미래 평생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지난 2018년 6월 시가 사회약자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장애인 평생교육 6대 영역의 총 5개 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20년 교육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장애인평생교육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에도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재선정됐다. 평생교육관련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GNLC'(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는 국제도시 간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 2015년 유네스코가 설립, 독일 함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76개국 236개 도시가 가입했다. 평생학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세계 회원 도시 간 공동 연구, 국제 협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시는 2018년 11월 UNESCO GNLC에 회원도시로 가입했으며 2021년 UNESCO로부터 지속가능 발전분야와 성인문해 분야의 우수 클러스터 도시로 선정돼 회원도시들과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UIL)의 라울 발데스 코테라(Raül Valdes Cotera, 독일)는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수업과 특수교사와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훌륭한 평생교육시설이며, 사회약자를 위한 특수 평생교육의 청사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UNESCO GNLC 관계자의 우리시 발달장애

인평생학습관 방문은 군산시가 시민이 함께하는 지립도시 군산을 목표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평생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우리시 평생교육사업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 등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소외됨이 없이 누구나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UNESCO 등 선진 교육도시와의 교육정보 공유 외에도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군산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평생교육관련 또다른 국제 기관으로 38개국 51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IO)으로부터 2018년 세계에서 평생교육의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우는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권역별 이동노동자 간이형 쉼터 설치 촉구"

최재현 익산시의회 의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은(모현, 송학)은 지난 27일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역별 이동노동자 간이형 쉼터 설치를 촉구했다. 최재현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규모 비접촉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택배 서비스나 배달대행 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익산시도 2021년 기준 약 2183명의 수많은 이동노동자가 근로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는 동부권에 단 하나뿐이나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부권에 우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권역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권역별 설치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 쉼터 설치 소요 경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아 개소한 간이형 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여러 방안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부의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 철회하고 증액 편성해 달라"

양정민 익산시의회 의원

익산시의회화가 정부의 2024년도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정민 의원은 지난 27일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자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을 제공 받고 청소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며 "정부



전체 예산의 고작 0.0057% 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활동 예산이 사라져 버리면 당장 청소년들이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고 창의성과 자아개발의 기회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청소년예산 지원은 청소년 관련 법령상 의무인데 이처럼 전례없는 정부의 청소년활동 예산 전액 삭감은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의 실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예산안의 청소년 예산 축소를 즉시 철회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시 청소년예산 재편성 및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국 '최고'

농식품부 · 한국농식품유통공, 전국 82개 법인공판장 등 평가... 최우수 도매법인 익산원협공판장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국도매시장에 속해 있는 법인·공판장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익산농수산물도매법인의 익산원협공판장이 '최우수' 법인으로 선정됐다. 이리청과회사 또한 '우수' 법인으로 평가받으며,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가와 시민들을 위한 공적 유통거점으로써 운영의 우수성을 다

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운영개선 및 유통주체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전국도매시장 33개소에 속해 있는 법인·공판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익산원협농협공판장은 2017년, 2018년, 2020년 '우수'를 거쳐 올해는 최우수 법인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농산물 거래량이 3만6332톤 및 801억37백만원으로 지역 농가들을 위한 공정거래 질서 노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물류 효율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와 함께 이리청과회사는 서비스 만족도, 사회적 기여율 등의 성장으로 2017년 '우수'에 이어 올해 '우수' 법인으로 선정됐다. 이들 법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이 주어지고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차등 지원 시의 행정처분 경감 및 시장사용료 인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도매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공개 조례안' 상임위 가결

한경봉 군산시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중 공개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했으며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개념 정의 및 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의 작성, 관리대상 및 증빙서류의 작성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를 군산시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등까지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했다"며 "군산시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원안가결됨에 따라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서 군산 정책 홍보부스 운영

군산시는 지난 25일~28일 익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행사에 참석해 군산시 도시재생 홍보부스와 마을기업 제품 마켓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는 '도시엔 활력을 지역에 일지리를!'이라는 주제 아래 전북도, 익산시, 연휴뉴스(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주최, 약 5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시재생 관련 최대 박람회다. 행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도시재생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컨퍼런스, 컨설팅, 세미나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산업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ITB Asia 2023 참가 국제홍보마케팅 추진

군산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 '2023 ITB Asia'에 참여해 군산관광 홍보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16회를 맞는 2023 ITB Asia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관광마이스 비즈니스 전시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세계의 항공, 호텔, 리조트, 크루즈, 여행사 등 분야별 여행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홍보전을 펼치고 B2B와 컨퍼런스 등이 함께 개최됐다. 시는 아시아 태평양 도시 간 관광 교류 및 상호발전 도모를 위해 구성된 국제교류기구 TPO(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홍보관 내에서 '군산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군산에 대한민국의 해양관광 명소이자 레트로 여행지로 소개했다. 특히, 부스 방문자들에게 고군산군도는 2022년 CNN이 소개한 아시아의 숨은 명소로 시간여행마을에 대해서도 레트로 추억여행의 대표 코스로 소개하고 '군산시간여행축제'를 가을철 대한민국에서 방문할 만한 대표 축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